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에 대한 고찰*

- 식물명과 물건명을 중심으로 -

이예안**
hinolee@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2.2 식물명 |
| 2. 본론 | 2.3 물건명 |
| 2.1 분석대상 텍스트 | 3. 마치며 |

主題語: 식물명(names of plants), 물건명(names of objects), 번역전략(translation strategies), 번역자(translator), 일한번역(Japanese-Korean translation)

1. 들어가며

번역이란 남의 나라 언어로 된 글이나 작품을 자국의 말로 옮기는 것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를 옮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¹⁾

『은하철도의 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동이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는 아동문학 특유의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본에 대해서 고유 명사 번역에 대한 연구²⁾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 연구³⁾, 출판현황에 대한 연구⁴⁾를 해 왔다. 지금까지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판 『銀河鉄道の夜』의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교수

1) 김옥동(2007)『번역인가 반역인가』문화수첩, p.27

2) 줄고(2010)『일한문학번역작품의 고유명사 번역에 대한 연구-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20』한국일본근대학회, pp.147-161

3) 줄고(2017)『『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에 대한 고찰- 우유(乳,牛乳), 켄타우로스 축제(ケンタウルス祭), 천기륜 기둥(天氣輪の柱), 사과(苹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110, 한국일본학회, pp.235-247

한국어 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에서 식물명과 물건명에 대한 번역양상과 번역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에는 많은 식물과 물건이 주요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는 식물명과 물건명을 살펴보면 일본에만 있거나 두 나라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은하철도의 밤』에만 등장하는 물건명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독자들이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식물명과 물건명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역서 본문을 분석하여 번역 문제를 논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일본어는 weblio사전과 위키페디아(ウィキペディア)를, 한국어의 경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위키백과를 사용했다. 식물명 검색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국립수목원(국가표준식물목록/산림청)을 참고했다. 그리고 『은하철도의 밤』의 작품세계에 대한 선행연구, 하라 시로오(原子郎) 『정본 미와자와 겐지 어휘사전(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 <지쿠마쇼보(筑摩書房), 2013>, 와타베 요시노리(渡部芳木) 『미야자와 겐지 대사전(宮澤賢治語大辭典)』 <벤세이출판(勉誠出版), 2007> 등을 근거로 논한다.

2. 본 론

2.1 분석대상 텍스트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2016년 12월 현재)은 김유영 역(1997), 이선희 역(2001, 2013)⁴⁾, 김난주 역(2001), 한성례 역(2002, 2009), 심중숙 역(2004, 2013), 박경희 역(2007), 고선운 역(2007), 고향옥·이영민 역(2011), 햇살과 나무꾼 역(2012), 박정임 역(2012), 박종민 역(2013), 김동근 역(2015)이 있다. 이 중 저본에 대한 기재가 있는 이선희 역, 김난주 역, 심중숙 역, 박경희 역, 햇살과나무꾼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만을 분석 대상 텍스트로 한다.

4) 줄고(2014)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본 출판 현황 연구」 『일본근대학연구45』 한국일본근대학회, pp.169-183

5) 이선희 역 2001년과 2013년을 분석텍스트로 사용하는 이유는 2001년에는 삽화가 있는데 2013년에는 삽화가 없는 점과 2001년과 2013년의 『은하철도의 밤』에 대한 작품 해설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1> 분석대상 텍스트

	번역자	출판사	번역연도	작가 및 작품해설
한국어1	이선희	바다 출판사	2001	조명렬 (문학박사,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어2	김난주	웅진닷컴	2001	김난주
한국어3	심종숙	북치는 마을	2004	심종숙
한국어4	박경희	작은 책방	2007	사이토 분이치(물리학) 요시미 마사노부(근대문학 연구가)
한국어5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2012	햇살과나무꾼
한국어6	박정임	너머	2012	박정임
한국어7	심종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심종숙
한국어8	이선희	바다 출판사	2013	조명렬(문학박사,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어9	김동근	소와다리	2015	김동근

2.2 식물명

『은하철도의 밤』에는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다음 표로 제시한 식물명 번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원문	烏瓜	いちいの葉	もみ	空のすすき
이선희(2001)	취참외	주목잎사귀	전나무	참억새
김난주(2001)	하늘타리	산달래 잎	단풍나무	억새
심종숙(2004)	카라스우리	주목나뭇잎	일본전나무	하늘갈대
박경희(2007)	개똥참외	주목나무 잎	전나무	억새풀
햇살과나무꾼(2012)	하늘타리 열매	주목나무 잎	전나무	억새
박정임(2012)	취참외	주목잎	전나무	억새
심종숙(2013)	취참외	주목나무 잎	일본전나무	하늘갈대
이선희(2013)	취참외	주목잎사귀	전나무	참억새
김동근(2015)	하늘타리 열매	주목나무 잎	전나무	하늘억새

일본어 ‘烏瓜’를 ‘귀참외’, ‘하늘타리’, ‘카라스우리’, ‘개똥참외’로 번역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귀참외’와 ‘하늘타리’⁶⁾는 같은 식물로 나오지만 ‘개똥참외’⁷⁾는 다른 식물로 나온다. 그리고 카라스우리⁸⁾는 한국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학명을 검색해 보면 귀참외는 *Trichosanthes cucumeroides* MAX로 나와 ‘하늘타리’와는 다른 식물임을 알 수 있다. ‘하늘타리’(*Trichosanthes kirilowii*)와 일본어 ‘キカラスウリ(*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와 비슷하지만 카라스우리(烏瓜, *Trichosanthes cucumeroides*)와는 다르다. 이상에서 보면 ‘개똥참외’는 오역임을 알 수 있다.

일본어 ‘烏瓜’와 완전히 일치하는 식물이 한국에는 없으므로, 각각 ‘귀참외’, ‘하늘타리’, ‘카라스우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똑같은 식물이 한국에 없다고 해서 비슷한 다른 식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번역자가 두 대상을 가까워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심종숙 역(2004)처럼 일본어 ‘烏瓜’를 음차번역을 하고 번역자 주를 달아주는 번역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늘타리’라고 번역한 김난주 역에서는

하늘타리 : 박과 식물의 다년초 이와테 현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음력 칠석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하늘타리의 씨를 파내고 그 안에다 불을 밝혀서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한다.
(p.111)

라고 용어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햇살과나무꾼 역에서는 ‘박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김동근 역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 김난주 역과 햇살과나무꾼 역에서는 하늘타리의 대한 설명이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번역전략을 쓰고 있지만, 원문에서 작가가 말하고 있는 식물은 하늘타리가 아니므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심종숙 역(2004)에서는 일본어 ‘烏瓜’를 음차 번역하여 우리말로 옮긴 ‘카라스우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 역주로

카라스우리(カラスウリ烏瓜) : 참외과에 속하는 식물로 학명은 일본의 혼슈우(本州), 큐우슈우(九州), 시코쿠(四国)등지에서 자생하며 열매는 달걀형 또는 타원형으로 10월경에 붉게 익는다. 식용

6) 박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길이는 3-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7-8월에 자주 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피고 열매는 공 모양으로 누렇게 익는다.

7) 길가나 들 같은 곳에 저절로 생겨난 참외. 참외보다 작고 맛이 없어 보통 먹지 않는다.

8) ウリ科の植物で、つる性の多年草。朱色の果実と、夜間だけ開く花で知られる。原産地は中国・日本で、日本では本州・四国・九州に自生する。

으로 쓰이지 않고 한방에서 진해, 거담, 진통제로 쓰이나 겐지 작품에서는 야생종으로 그가 어렸을 때 카라스우리의 속을 파내고 등을 만들어 강에 띄우며 놀았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식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에서 검색하면 ‘하늘타리’의 열매는 노란색이다. 그러나 하라 시로오의 『정본 미야자와 겐지 어휘사전』에 따르면 ‘카라스우리’의 열매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온다⁹⁾. 외타베 요시노리 『미야자와 겐지 대사전』을 참고하면, 조반니와 캄파넬라가 사는 마을에서는 켄타우르스 축제날 밤 카라스우리 열매 속을 파내어 불을 밝히고 강으로 흘려보내는 풍습이 있다¹⁰⁾고 나와 있다. 즉 켄타우르스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말로 옮겨주는 번역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문에서도 ‘烏瓜’라고만 나오기는 했지만 ‘烏瓜’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로 등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카라스우리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烏瓜’를 음차 번역한 ‘카라스우리’는 대한민국의 외래어 표기법 중 일본어 한글 표기법으로는 ‘가라스우리’로 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어표기법’ 자체가 현재 일본어의 발음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서출판 ‘창비’나 한국외국어대출판부도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규정을 사용하고 있고, 번역가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이런 실정에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烏瓜’를 음차 번역한 ‘카라스우리’를 오역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즉 번역자가 음차 번역을 할 경우 ‘烏瓜’를 음차 번역한 ‘카라스우리’처럼 일관성 있게 표기 기준을 세우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인정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다.

심중숙(2004)이 일본어 ‘烏瓜’를 한국어로 번역한 ‘카라스우리’가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닌 외래어라는 이름의 한국어가 된 것처럼, 번역어도 물론 한국어이다. ‘카라스우리’에는 일본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으며 한국문화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문화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넓혀 나가도록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식물일 경우 비슷한 식물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가의 태도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9) …また童〔銀河鉄道の夜〕の「銀河のお祭り」(→ケンタウル祭)に「あかり」ともして流す烏瓜(食用にはしないが晩秋にランプ状の赤い大きな実の塾したのを飾ったりした野生種)が出てくる。詩〔滝沢野〕にも柏の木にからまり寄生して塾した烏瓜を赤い手さげのランプに見たてた「柏の木の烏瓜ランタン」が出てくる。原子郎『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筑摩書房, 2013), p.80

10) 童話「銀河鉄道の夜」にも烏瓜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ジョウバンニとカンパネルラが住む町では、ケンタウル祭の祭りの晩、烏瓜の実をくり抜いてあかりをつけて川に渡す風習がある。渡部芳紀(2007)『宮澤賢治大事典』勉誠出版, p.310

‘いちい’는 일한사전을 찾으면 ‘주목나무’로 나오고 ‘산달래’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김난주(2001) 역의 ‘산달래’는 오역이며 ‘산달래’에 대한 역자 용어 해설¹¹⁾ 또한 ‘산달래’의 사전 검색결과¹²⁾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역주이다.

‘もみ’는 ‘일본전나무’로 번역한 심송숙(2004, 2013)만이 적절하다. ‘단풍나무’라고 번역한 김난주 역은 오역이다.

학명을 비교해 보면 ‘すすき’와 ‘참억새’는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로 일치한다. ‘갈대’는 *Phragmites australis*로 확실히 ‘참억새’와는 학명이 다르다. ‘억새’는 산과 들에 자라고 ‘갈대’는 물가나 습지에 자라는 식물이다. ‘すすき’를 ‘갈대’로 번역한 심송숙(2004, 2013) 역은 오역이다. 다른 번역자의 ‘억새’ ‘억새풀’ ‘하늘 억새’ 등은 내용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으므로 오역은 아니라고 본다.

2.3 물건명

우선 ‘ラムプシェード’가 나오는 예문을 제시하고 ‘ラムプシェード’와 ‘罐’에 대한 번역양상을 표로 제시하기로 하겠다.

(예문)中にはまだ昼なのに電灯がついてたくさんの輪転器がばたりばたりとまはり、きれで頭をしばったりラムプシェードをかけたりした人たちが、何か歌ふやうに読んだり数へたりしながらたくさん働いて居りました。

원문	ラムプシェード	罐
이선희(2001)	램프의 갓 같은 모자	기관
김난주(2001)	챙 달린 모자	기관
심송숙(2004)	전등 불빛을 받고 있는	깡통
박정희(2007)	앞창이 달린 모자	기관
햇살과나무꾼(2012)	전등 갓처럼 생긴 모자	램프
박정임(2012)	삿갓모양의 모자	램프
심송숙(2013)	전등 불빛을 받고 있는	깡통
이선희(2013)	램프의 갓 같은 모자	기관
김동근(2015)	전등 갓 같은걸 쓴	엔진

11) 산달래과의 늘푸른나무로 높이가 약 15미터에 달한다. 잎은 바늘모양이고 잔가지에 촘촘히 난다. 기구, 장식품, 연필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12)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40-60cm이며, 잎은 줄기 밑에 2-3개가 나고 선 모양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ラムプシェード’에 대해서 심종숙(2004, 2013)은 ‘전등 불빛을 받고 있는’으로, 김동근(2015)은 ‘전등 갓 같은걸 쓴’으로, 나머지 번역자들은 모자를 쓴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우선 오쓰카 쓰네키(大塚常樹, 2008)가 주석을 달고 있는 『은하철도의 밤』(가도가와문고)에는

여기에서는 램프의 갓 같은 모자, 램프 갓·차양이 있는 모자. 활자를 주울 때는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자를 쓴다(ここではランプの傘に似た帽子、ラムプシェード・ハットのこと。活字拾いでは髪の毛が混入しないよう帽子をかぶる。) ¹³⁾

라고 되어 있다. 하라 시로오(2013) 『정본 이와자와 겐지 어휘사전』에는

이 램프셰이드는 선바이저인가?, 활자를 주울 때 문선공이 활자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마에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를 달고 있는 것일 것이다(この ランプシェードはサンバイザーか、活字をひろく文選工が活字がよく見わけられるよう医者のように、ひたいの上に小さなシェードつきのラムプをつけているのであろう… (p.757)

라고 해석하고 있다. ‘ラムプシェード’를 오쓰카 쓰네키씨는 ‘램프의 갓 같은 모자’라고 주석을 달고 있고, 하라 시로오씨는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라고 하고 있다. 심종숙(2004, 2013)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자들은 오쓰카 쓰네키씨의 주석과 유사한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라 시로오씨의 『정본 이와자와 겐지 어휘사전』을 참고하여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로 번역한 번역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ラムプシェード’를 하라 시로오씨의 해설대로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ラムプシェード’에 대한 (예문)에서는 나오지만 활자를 읽거나 주울 때 문선공이 활자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마에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를 달고 있는 것이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罐’이 나오는 예문을 제시하고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예문)カムパネルラのうちにはアルコールランプで走る汽車があったんだ。レールを 七つ組み合わせると丸くなってそれに電柱や信号標もついていて、信号標のあかりは 汽車が通るときだけ青くなるようになっていたんだ。いつかアルコールがなくなったとき石 油をつかったら、缶がすっかり煤けたよ。

13) 井上伸一郎(2008)『銀河鉄道の夜』角川文庫, p.235

위의 예문에서 ‘罐’은 ‘アルコールランプで走る汽車’의 ‘罐’을 가리킨다. 시대적 배경과 글의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알코올램프로 증기를 발생시켜 그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증기기관차의 모형 장난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アルコールランプで走る汽車’인 것으로 보인다.

증기기관차는 증기 기관에서 구동력을 얻어 움직이는 기관차를 말한다. 구조는 차체 운전실, 프레임, 연결기, 보일러¹⁴⁾, 구동부, 차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문에서 말하는 ‘罐’은 정확하게는 기차의 ‘보일러’의 부분을 말하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을 때, ‘보일러’ 혹은 ‘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라고 표현한 이선희 역(2001, 2013), 김난주 역, 박경희 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깡통’이라고 표현한 심종숙 역(2004, 2013)은 원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역이라고 생각된다. 햇살과나무꾼 역, 박정임 역은 ‘알코올 램프’안에 알코올 대신 석유를 넣었더니 ‘램프’가 타버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罐’의 사전적 의미상 ‘램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역시 오역으로 보인다. ‘엔진’이라고 표현한 김동근 역의 경우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증기 기관차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엔진’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은 ‘銅の人馬’이 나오는 예문과 번역양상을 표로 제시하고 번역전략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예문)…いろいろな宝石が海のやうな色をした厚いガラスの盤に載って、星のようにゆっくりめぐったり、また向ふ側から、銅の人馬がゆっくりこっちへまはって来たりするのでした。

(p.293)

원문	銅の人馬
이선희(2001)	청동인마
김난주(2001)	구리로 만든 말 인형
심종숙(2004)	동으로 만든 인마(人馬)
박경희(2007)	구리로 만든 켄타우루스
햇살과나무꾼(2012)	구리로 만든 사람과 말
박정임(2012)	구리로 만든 반인반마 켄타우루스
심종숙(2013)	구리로 만든 인마(人馬)
이선희(2013)	청동인마
김동근(2015)	황동으로 만든 켄타우루스

(표에서 글자를 짚게 한 부분이 오역임을 나타냄)

14) 보일러는 증기를 발생하기 위하여 물을 끓이는 장치를 말하며, 증기 기관차의 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기의 증기기관차의 경우 그 형식이 다양하였으나, 점차 지금과 유사한 횡치형의 연관을 대량으로 가진 보일러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보일러의 증기 압력 및 온도 역시 향상되어 그 동력성능에 기여하였다.

우선 ‘銅’에 대한 번역을 알아보고 ‘人馬’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銅’을 일본어 사전에서 찾으면 ‘청동’은 구리와 합금으로, ‘구리’는 붉은색을 띤 금속 원소이며 원자기호는 Cu, 원자번호는 29로 나온다. ‘구리’와 ‘동’은 같다고 나온다.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10~45% 넣어 만든 합금으로 나온다. 사전 검색 결과로 보아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銅’은 우리말의 ‘구리’ 혹은 ‘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 ‘황동’은 확실히 ‘구리’와 ‘동’과는 다르므로 ‘청동’이라고 번역한 이선희 역(2001, 2013)과 ‘황동’이라고 번역한 김동근(2015) 역은 오역이다.

‘人馬’의 경우는 일본어 의미가 ‘사람과 말’, ‘반인반마의 켄타우루스’ 두 가지 모두를 뜻하는데, 『은하철도의 밤』의 작품 세계에서는 켄타우루스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람과 말’이라고 표현한 햇살과나무꾼 역은 의미상 오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작품 세계에서는 ‘人馬’는 켄타우루스를 가리키므로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는 ‘인마’라고만 표현하면 의미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선희(2001, 2013) 역과 심종숙(2004, 2013) 역의 경우처럼 한자를 첨가하거나 설명을 덧붙여주어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人馬’에 대해서는 이선희(2001, 2013)¹⁵⁾ 역과 심종숙(2004, 2013)¹⁶⁾ 역에서만 역주를 달고 있다. 심종숙(2004, 2013)이 역주에서 ‘켄타우루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켄타우루스 축제를 이해시키려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선희(2001, 2013) 역과 심종숙(2004, 2013) 역에서는 일본어 ‘人馬’를 한국어 ‘인마’로 번역하고 역주에 인마를 켄타우루스를 가리킨다고 설명하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박정희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처럼 일본어 ‘人馬’를 ‘켄타우루스’ 혹은 ‘반인반마 켄타우루스’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독자들의 가독성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번역 전략이라고 본다. 김난주 역에서는 ‘말 인형’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인마(人馬)이므로 오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天鵝絨(びろうど)’과 真鍮の大きなぼたん’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번역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5)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인 켄타우로스를 가리킨다.(2001, p.26), (2013, p.230)

16) 반인반마(半人半馬)인 켄타우루스(Centaurus)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케이론(Cheiron)의 별자리다. 그는 무척 총명하고 우아했으며 의학, 음악, 사냥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또 뛰어난 교육자로서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을 가르쳤고 하늘의 별자리를 정리하여 사람들의 지표가 되게 했다. 그가 죽은 후 제우스 신은 그의 공을 가리기 위해 남쪽 하늘의 밝은 별들 속에 그의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하늘에서 세 번째 밝으며, 남반구의 남십자성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이다(이태영, 《우리 별자리》, 1993) (2004, p.26) (2013, p.86)

(예문)車室の中は、青い天鵲絨を張った腰掛けが、まるでがら明きで、向ふの鼠いろのワニスを塗った壁には、真鍮の大きなぼたんが二つ光ってゐるのでした。

원문	天鵲絨	真鍮の大きなぼたん
이선희(2001)	벨벳	청동단추
김난주(2001)	빌로드	신주단추
심종숙(2004)	거위털로 짠 천	놋쇠로 만든 큰 단추
박경희(2007)	벨벳 천	놋쇠로 된 커다란 단추
햇살과나무꾼(2012)	우단	놋쇠로 된 커다란 누름 단추
박정임(2012)	벨벳	커다란 놋쇠 버튼
심종숙(2013)	비로드 천	놋쇠로 만든 큰 단추
이선희(2013)	벨벳	청동단추
김동근(2015)	융단	놋쇠로 된 커다란 단추

우선 일본어 ‘天鵲絨(びろうど)’를 ‘벨벳’, ‘비로드’, ‘우단’ 으로 번역한 것은 의미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들을 구글 등에서 용례를 검색해 보면 ‘벨벳’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로드’, ‘우단’이라고 번역한 햇살과나무꾼 역과 심종숙(2013) 역은 오역은 아니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벨벳’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빌로드’라는 단어는 ‘비로드’의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빌로드’ 라고 표현한 김난주 역은 오역으로 판단된다. ‘융단’이라고 번역한 김동근 역과 ‘거위털로 짠 천’이라고 번역한 심종숙 역(2004)은 일본어 ‘天鵲絨’의 한국어 의미와는 다르므로 오역이다.

‘真鍮’를 일본어 사전에서 검색하면 ‘黃銅’이라고 나오면 ‘黃銅’은 동과 아연의 합금으로 나온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나온다. ‘신주’는 검색되지 않는다. ‘놋쇠’는 구리에 아연을 10~45% 넣어 만든 합금이다. ‘놋쇠’라고 번역한 심종숙 역(2004, 2013), 박경희 역, 햇살과나무꾼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은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번역은 ‘놋쇠로 만든 큰 단추’ ‘놋쇠로 된 커다란 누름 단추’ 등과 같이 지나치게 설명조의 번역으로 가독성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다. ‘청동’이라고 번역한 이선희 역과 ‘신주단추’라고 번역한 김난주 역은 오역이다.

3. 나가며

이상에서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에 나타난 식물명, 물건명에 대해 번역양상 및 번역 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식물명의 경우는 심종숙(2004)이 일본어 ‘烏瓜’를 한국어로 ‘카라스우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자의 번역보다는 적절한 번역이라 생각한다. 원문에서도 ‘烏瓜’라고만 나오기는 했지만 ‘烏瓜’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로 등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카라스우리 열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いちい’는 ‘주목나무’로, ‘もみ’는 ‘일본진나무’로, ‘すすき’는 ‘억새’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건명의 경우는 ‘ラムプェド’를 하라 시로오씨의 해설대로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罐’은 ‘기판’이라고 표현한 이선희 역(2001, 2013), 김난주 역, 박경희 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銅’은 우리말의 ‘구리’ 혹은 ‘동’이라는 번역이 적절하다. 일본어 ‘人馬’를 박경희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처럼 ‘켄타우루스’ 혹은 ‘반인반마 켄타우루스’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독자들의 가독성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번역전략이라고 본다.

일본어 ‘天鵲(びろうど)’에 대한 번역은 이선희 역, 박경희 역, 박정임 역이 가장 적절하다. 일본어 ‘真鍮’에 대한 번역은 ‘놋쇠’라고 번역한 심종숙 역(2004, 2013), 박경희 역, 햇살과나무꾼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은 적절하다고 본다.

심종숙(2004)이 일본어 ‘烏瓜’를 한국어로 번역한 ‘카라스우리’가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닌 외래어라는 이름의 한국어가 된 것처럼, 번역어도 물론 한국어이다. 번역어에는 외래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으며 한국문화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문화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넓혀 나가도록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은하철도의 밤』을 번역할 경우 『銀河鉄道の夜』의 작품세계에 대한 선행연구, 하라 시로오 『정본 미야자와 겐지 어휘사전』, 와타베 요시노리 『미야자와 겐지 대사전』 등의 검토를 통해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번역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식물명과 물건명과 관련된 다양한 참고서를 펼쳐 전문적 지식을 쌓으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번역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옥동(2007)『번역인가 반역인가』문화수첩, p.27
 사카이 나오키 지음, 후지이 다케시 옮김(2005)『번역과 주체』이산, p.121
 井上伸一郎(2008)『銀河鉄道の夜』角川文庫, p.235
 鎌田東二(2012)宮沢賢治『銀河鉄道の夜』精読, 岩波書店, pp.165-338
 原子郎(2013)『定本宮沢賢治語彙辞典』筑摩書房, p.80
 宮沢賢治作/谷川徹三編(2009)『童話集銀河鉄道の夜他十四篇』岩波文庫, pp.282-401
 渡部芳木(2007)『宮沢賢治語大辭典』勉誠出版, p.310

<용례 출전>

이선희(2001)『은하철도의 밤』바다 출판사
심종숙(2004)『은하철도의 밤』북치는 마을
박경희(2007)『은하철도의 밤』작은 책방
햇살과나무꾼(2012)『은하철도의 밤』비룡소
박정임(2012)『은하철도의 밤』너머
심종숙(2013)『은하철도의 밤』지식을 만드는 지식
이선희(2013)『은하철도의 밤』바다 출판사
김동근(2015)『은하철도의 밤』소와다리

논문투고일 : 2018년 07월 03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에 대한 고찰

- 식물명과 물건명을 중심으로 -

이예안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에 나타난 식물명, 물건명에 대해서 번역양상 및 번역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식물명의 경우는 심종숙(2004)이 일본어 ‘烏瓜’를 한국어로 ‘카라스우리’로, ‘いちい’는 ‘주목나무’로, ‘もみ’는 ‘일본전나무’로, ‘すすき’는 ‘억새’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건명의 경우는 ‘ラムプシェット’를 하라 시로오씨의 해설대로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罐’은 ‘기관’이라고 표현한 이선희 역(2001, 2013), 김난주 역, 박경희 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銅’은 우리말의 ‘구리’ 혹은 ‘동’이라는 번역이 적절하다. 일본어 ‘人馬’를 박정임 역, 박정임 역, 김동근 역처럼 ‘켄타우루스’ 혹은 ‘반인반마 켄타우루스’라는 번역이 적절하다. 일본어 ‘天鵲絨(びろうど)’는 이선희 역, 박경희 역, 박정임 역이 적절하다. 일본어 ‘真鍮’는 ‘놋쇠’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하철도의 밤』을 번역할 경우 『銀河鉄道の夜』의 작품세계에 대한 선행연구, 하라 시로오 『정본 이와자와 겐지 어휘사전』, 와타베 요시노리 『미야자와 겐지 대사전』 등의 검토를 통해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번역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식물명과 물건명과 관련된 참고서를 펼쳐 전문적 지식을 쌓으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번역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Consideration on Various Korean Translations of Kenji Miyazawa's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 Translating the Names of Plants and Objects -

Lee, Rae-An

This paper reviews various Korean translations of Kenji Miyazawa's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to discuss different translation patterns and strategies for the naming of plants and objects, with suggestions for more suitable alternatives, when necessary.

Translator Shim Jong-suk (2004) suggested appropriate Korean options for the names of plants in her translations of the terms ‘snake gourd (烏瓜)’ as ‘*karasuri* (카라스우리)’, ‘yew tree (いちい)’ as ‘*Jumok Namu* (주목나무)’, ‘Japanese fir (もみ)’ as ‘*Ilbon Jeonnamu* (일본전나무)’, and ‘silver grass (もみ)’ as ‘*Eoksae* (억새)’ in Korean. In terms of the names of objects, Hara Shiro explained that ‘lamp with a shade (ラムプシェット)’ should be translated as ‘*Jageun Chayangyi Dallin Laemp* (작은 차양이 달린 램프)’ in Korean. It also seems appropriate that other Korean translators including Yi Seon-hee (2001, 2013), Kim Nan-ju and Park Kyeong-hee, translated the word ‘engine (罐)’ as ‘*Gigwan* (기관)’ in Korean. Korean translations for ‘copper (銅)’ would be ‘*Guri* (구리)’ or ‘*Dong* (동)’. In case of the word ‘Centaurus (人馬)’, as translators Park Kyeong-hee, Park Jeong-im and Kim Dong-geun suggested, ‘*Kentaurus* (켄타우루스)’ or ‘*Banin Banma Kentaurus* (반인반마 켄타우루스)’ would be suitable options for the Korean translation. The Japanese word for ‘velvet (天鵲絨 or びろうど)’ was properly translated in the versions by such translators as Yi Seon-hee, Park Kyeong-hee and Park Jeong-im. The Korean word ‘Notswe (놋쇠)’ would be an appropriate substitute for the Japanese word for ‘brass (真鍮)’.

Translators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need strategies to deliver to the readers the accurat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Suggested strategies include reviewing preceding research about the literary world that the original Japanese version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envisages, by referring to such publications as The Original Edition of Kenji Miyazawa's Lexicons (by Hara Shiro) and The Unabridged Dictionary for Kenji Miyazawa Books (by Watanabe Yoshinori). Additionally,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from reference books on the names of the plants and objects in question would create a solid base for the ability to choose appropriate translations wit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